

돼지 같은 회장을 뽑자

Piggy One for Our President!

돼지해, 정해년이다.

돼지는 가축으로 길들여져 인간과 함께한 역사가 가장 긴 동물 중 하나이며 그 효용성도 크데, 일상적인 이미지는 꿈과 현실 속에서 극과 극이다. 즉 꿈속의 돼지는 재복의 상징으로 여겨진 반면, 속담 속에 녹아있는 현실은 욕심 많고 추하고 둔한 것들이 대부분이다.

격에 맞지 않을 때 쓰는 속담으로 '돼지우리에 주석 자물쇠' 나 '돼지 발톱에 봉숭아물 들인다' 그리고 '돼지발에 편자' 등이 있다. '돼지는 흐린물을 좋아한다' 는 돼지의 더러움을, '돼지 윈 발톱' 은 상귀를 벗어난 행동을 하는 사람을 빗댄 때 이르는 말이다. '돼지도 낮을 붉히겠다' 는 철면피에게 하는 말이고, '돼지 밥을 잇는 것이 네 옷 대기보다 낫다' 는 개구쟁이의 장난으로 하루에도 몇 번씩 옷을 갈아입힐 때 쓰는 말인데, 거꾸로 보면 돼지의 식탐을 말한 것이 된다. '돼지 그려 붙이겠다' 도 이와 유사한 것으로 진귀한 음식을 혼자 먹을 때, 그를 향해 하는 말이다. '돼지 오줌통 몰아 놓은 것 같다' 는 못생긴 얼굴을, '돼지가 깃을 물어들이면 비가 온다' 는 속담은 미련한 자의 말이 맞을 때 사용한다. '돼지 앞에 진주' 도 어리석음을 빗댄 속담이고 '돼지 먹따는 소리' 는 음치를 이른다. 그런가 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와 같은 뜻으로 '돼지 값은 칠푼이요 나무 값은 서돈이다' 란 말이 사용되기도 한다.

식견이 좁고 오만방자하여 세상을 제멋대로 판단하며, 하찮은 공을 갖고 양양대는 자들을 훈계하기 위하여 돼지가 등장하기도 한다. 후한(後漢) 초, 어양태수 팽충이 논공행상에 불만을 품고 반란을 일으키자 대장군 주부가 그를 꾸짖는 글에 있는 고사성어로서, 중국의 후한서(後漢書), 문선(文選), 주부서에 기록된 '요동지시' 즉 요동의 돼지가 그것이다.

요동 돼지는 모두 검은데, 한 농부가 흰머리의 돼지새끼를 얻었다. 이에 진귀하다 여기고 이를 임금께 진상하기 위하여 하동으로 가는 배를 탔다. 소중히 여기는 돼지새끼의 사연을 들은 배안이 웃음바다가 되었다. 하동에 내려 보니 그곳 돼지는 모두 흰색이었다. 그는, 광무제의 많은 공신들 중 너의 공은 요동돼지에 불과하다고 공박하였다.

이렇듯 부정적 이미지가 강하지만, 학자들은 돼지가 대소변도 지정한 곳에 보며, 깨끗한 것을 좋아하고, 벽에 비비거나 더러운 물에 뒹구는 것도 신체의 온도조절 때문이라고 한다.

요즈음 국내의 돼지농가들은 WTO에 대항하기 위해, 인삼, 약용식물, 녹차 등을 먹이거나 돼지를 운동시켜 육질을 좋게 하는 등 특성화하여 그 식탁을 풍성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돼지의 기여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최근 생명과학의 발달은 인간의 장기와 가장 유사한 돼지의 장기를 이용하여 인간의 질병을 치료함으로써 장수의 길을 여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 한다. 이렇듯 생명의 양식과 수명의 연장에 도움을 주는 돼지의 효용성은 옛날에도 마찬가지였다.

중국과 한국은 종교제례나 그 밖의 제사 때, 삼생(三牲)이나 대뢰(大牢)라 하여 소, 양, 돼지를 희생 제물로 드렸다. 조선시대

흔히 상대방을 모욕할 때 쓰는 말이 '개돼지만도 못한 인간'이다.
 그러나 돼지는 해부할수록 그 가치가 높아지고, 사람들은 대부분 파고들수록 더러움만 커지게 마련이다.
 새 회장은 1만여 회원은 물론 가입하지 않은 비회원 건축사까지 돌보고 이끌어야 한다.
 그의 앞에는 건설회사의 설계허용부터 건축사 등록원, 교육원의 설립과 주관 등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이를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지와 덕을 겸비해야하고 강력한 리더십도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요동지시'를 배격하고 '신급돈어'와 같은 신의와
 돼지같이 온 몸을 회원에게 주는 희생정신이 투철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에는 전생서란 부서가 있어 이를 관장하였다. 이렇듯 귀히 쓰이던 돼지였기에, 중국에서는 이를 이용한 요리도 많다. 양의 창자에 오리 알의 노른자를 삶아 넣은 것을 다시 돼지 창자에 흰자와 함께 넣어 시루에 찌서 식힌 후 말굽모양으로 썰어서 만든 요리를 대봉란(大鵬卵)이라 하는데, 필자도 문헌만 보고 맛을 보지 못했으나 꽤나 먹음직할 것 같다.

고려시대에는 기구라는 운동기구가 있었는데 거죽을 가죽으로 등글게 만들고 속에 돼지 오줌통을 넣고 바람을 채워 만든 공이라고 하였다. 60년대 우리의 축구나 배구공이 튜브와 거죽으로 되어 있었던바 그의 원조 격이다. 털로는 저모필이란 큰 붓을 만들었고, 저모 필은 돼지털을 안에 대어 만든 것으로 당상관이 쓰던 고급품이었다. 장선은 창자로 만든 노끈 모양의 줄로서 외과수술용 실인데 조직 내 흡수되어 녹아버림으로 실밥을 뽑을 필요가 없다. 또 현악기의 줄이나 라켓의 그물로도 쓰인다고 한다. 피갑은 돼지가죽으로 만든 갑옷이다.

어느 하나 버릴 것 없이 쓰이는 돼지는 약용으로도 큰 몫을 한다. 간장은 조혈제로 유효하고, 꼬리에서 받아낸 저미혈은 두창이나 줄 중풍의 약재이다. 쓸개는 저담이라 하여 열을 내리는 데와 안질에 쓰이며 기름은 고약제조에 쓰였다. 간은 각기병과 대하증에, 염통의 피는 간질약이다. 귀먹은 데는 저신죽을 쓰는데 인삼, 파밑등을 한데 넣어 반쯤 끓이다가 소금에 절인 돼지 콩팥을 넣고 끓여 만든다.

이렇듯 고마운 돼지에 관한 사자성어 중 신급돈어(信及豚魚)가 있다. 말 그대로 돼지나 물고기 등 무심한 생물조차 믿어 의심치 않는다는 뜻이니 신의(信義)의 지극함을 이르는 말이다.

며칠 전 모 방송국에서 '주부들이 아파트 면적이 정말로 맞는지 의심하니, 실측을 하면서 진위를 알려 달라'는 청탁을 받고, 쓴 웃음을 지으면서 출연하였다. 최고통치자부터 어제와 오늘의 말이 다르다보니 불신에 대하여 누구를 탓하라. 흔히 상대방을 모욕할 때 쓰는 말이 '개돼지만도 못한 인간'이다. 그러나 돼지는 해부할수록 그 가치가 높아지고, 사람들은 대부분 파고들수록 더러움만 커지게 마련이다.

우리협회는 다음 달 새 회장을 선출한다. 새 회장은 1만여 회원은 물론 가입하지 않은 비회원 건축사까지 돌보고 이끌어야 한다. 그의 앞에는 건설회사의 설계허용부터 건축사 등록원, 교육원의 설립과 주관 등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이를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지와 덕을 겸비해야하고 강력한 리더십도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요동지시'를 배격하고 '신급돈어'와 같은 신의와 돼지같이 온 몸을 회원에게 주는 희생정신이 투철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고기, 가죽은 물론 내장과 피와 기름까지 모두 주고 가는 돼지의 희생정신과 신의의 지극함, 이 둘만이 모든 회원을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이며, 그래야만 하나된 그 큰 힘으로 난관을 극복하고 위대한 회장으로 남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러한 사람을 선택해야 한다. ■